

##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가능성과 한계\*,\*\*

백 종 국  
단독/경상대학교

Back, Jong Gook (2011),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Possibility and Limit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bate the policy alternatives and limits of Latin American sustainable development.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changed their developmental strategies from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and neoliberal globalisa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the discussion of “Green Industrial Revolution” and “Ecological Social Revolution”, ensuing policy alternatives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ecological land use planning, eco-tourism, establishment of ecological corridor, green employment, biodiversity, new recycling energy, and ecological debt program are discussed in detail. This paper deals with the harmony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need of political regime change, and the cost transfer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forerunners to late-comers as the limitations of Latin American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last chapter, this paper adds the possibility of Latin American-Korean cooperation through various ways such as ODA. Especially, the Korean model of land reform, strong educational drive, and the formation of reformative ruling coalition is emphasized as the same effective ways for Latin America.

**Key words** Latin America, sustainable development, developmental strategies,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Korean development model  
라틴아메리카, 지속가능한 발전, 발전전략, 환경보호, 한국발전모델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 본 논문은 2010년 12월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동계학술대회의 발표 논문을 수정한 것임.

## I. 서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라틴아메리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실험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동안 몰두하였던 수입대체산업화라는 자주적 발전 대안이 실망스러운 성과를 낸 이래 수출주도형 산업화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등을 새로운 대안으로 채택해 보았지만 역시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1980년대 중반부터 유엔의 기구들을 통해 공론화되었는데 이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구호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은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갖가지 측면을 정리해 보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한 다음 한국의 공동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라틴아메리카 발전전략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발전전략의 분류를 활용하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다수가 선택했던 특정한 시점의 발전전략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생태주의 운동의 역사를 요약하고자 한다. 아즈텍에서 치코 멘데스에 이르는 기나긴 역사를 간략히 소개할 것이다.

이 논문의 핵심은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추구하는 정책과제와 이 정책들이 직면한 한계이다.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녹색산업혁명론’과 ‘생태사회혁명론’을 소개하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검토할 것이다. 주로 토지와 삼림, 해양, 공기 등 자연영역별로 논의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과 같은 새로운 관심주제도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정책과제들의 해결방안도 생태적 토지이용계획이나 생태관광,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하다. 문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조화, 기술변화를 넘어서는 체제변화의 필요성 등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대안이 있다고 해도 대안을 실천할 세력이 없으면 발전전략의 교체는 난망한 일이다.

정치경제학적 분석방법은 이처럼 다양한 주제들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데 유의할 뿐 아니라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한계점을 다루는 데 특히 효율적이

다. 핵심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세력의 문제이다. 라틴아메리카 생태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나타나듯이 어떤 발전전략이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 전략을 선택하고 추진하는 세력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공동체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정책적 과제들을 결론삼아 다루고 있다. 제3세계 역사의 유사성으로 한국은 라틴아메리카와 공동체적 협력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그러한 영역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병행발전이라는 한국 모델은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위해서 참조할 만하다.

## II. 라틴아메리카 발전전략의 변화

발전전략이란 한 국가가 안전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추구하는 정책적 선택의 틀이다(Mares 1985, 667). 이 틀은 다양한 패러다임과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며, 이 분류의 기준에 따라 정책적 선택의 내용도 달라진다. 물론 이 선택은 해당 국가 공동체의 지배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백종국 2009, 110). 이러한 선택의 이유와 결과를 통틀어서 발전모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근대 사회를 지배하는 3대 패러다임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민족주의 그리고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이며 주요 발전전략도 이러한 패러다임에 각각 기초를 두고 있다(Gilpin 1987, 25-54). 이 패러다임들은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에서 풍요하게 사는 것을 공통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목표에 이르는 분석의 단위나 논리가 각자 다르며 때로 적대적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이 패러다임을 채택한 국가들 사이에

서는 명료한 차이들이 나타났고, 크게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라는 양대 발전모델로 분화한 바 있다.

산업화의 상대적 단계에 따라 선발산업화와 후발산업화로 분류하기도 한다. 거셴크론은 산업화의 후발성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Gerschenkorn 1952). 예컨대 가장 먼저 산업화에 성공한 영국은 상업은행으로 족했는데 비해, 그보다 후발국가인 프랑스는 개입주의적 국가와 투자은행, 그보다 더 늦은 독일은 개입주의적 국가와 투자은행 그리고 강력한 민족주의가 발달되었다는 점이다. 가장 늦은 러시아는 아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국가가 후발산업화를 관장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이들보다 더 늦은 제3세계를 위해 허쉬만은 후후발산업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Hirschman 1968).

각각의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내부지향적 발전전략과 외부지향적 발전전략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 분류는 발전전략의 주체인 국가가 추구하는 산업화의 방향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며 빈번히 이 전략의 명칭을 바로 발전모델의 명칭으로 혼용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분류이다.

내부지향적 발전전략에는 자급자족 전략과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이 있다. 자급자족 발전전략이란 생활물자의 생산과 소비를 국내체제의 틀 안에서 완결시키려는 전략이다.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추구해왔던 전략이며, 종속이론 등 일부 자본주의의 비판이론들이 지향하는 체제이기도 하다. 수입대체산업화 발전전략은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국제체제에 일정한 참여를 유지하지만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공산품의 수입을 국내산업의 보호를 통해 점차 대체하려는 전략이다. 양차 세계 대전의 시기를 거쳐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채택했던 전략이다.

외부지향적 발전전략에는 일차상품수출주도전략과 수출대체산업화전략이 있다. 일차상품수출 발전전략은 국제 분업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일차상품(커피, 소고기, 석유 등)의 수출을 통해 국부를 증가시키려는 방안이다. 현재의 중동이나 덴마크 등 유럽의 소국들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의 국가들

이 이 전략을 채택했다. 수출대체산업화(Ex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발전전략은 해외시장을 위한 수출품목을 일차산품에서 공산품으로 대체함으로써 산업화를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매우 특이한 전략으로서 한국과 대만 등 몇몇 국가들만이 성공했다. 흔히 사용되는 수출주도산업화(Export-led Industrialization)라는 개념은 석유 등 일차산품의 수출을 통해 축적된 자본으로 산업화를 추구하는 중동 국가들의 발전전략과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기반으로 수출대체산업화를 추구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전략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좋은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sup>1)</sup>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발전전략이 보여주는 역사는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에서 수출대체산업화 전략으로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Mares 1985; Sanchez 2003; Gereffi 2009). 이러한 발전전략의 이행에는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발생한 다양한 요인과 이 요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역동적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대체로 수입대체산업화를 추구하였다. 세계대전의 시기에 조성된 민족주의 경향과 함께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와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추세가 국내 제조업의 육성, 이를 위한 보호관세와 각종 지원책 마련, 자국 시장 및 기업의 내국인화, 이를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이 진행되었다. 수입대체산업화의 초반에 놀라운 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정치적 정통성도 확보될 수 있었다. 그러나 허쉬만이 지적한 바 수입대체산업화의 애로가 발생했다(Hirschman 1968). 산업화의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협소한 국내 시장과 자본 도입 비용의 증가, 특히 후방연쇄의 실패가 무역적자 누적, 국제경쟁력 약화, 외채 증가와 함께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

1980년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는 외부

1) 석유수출을 통한 산업화의 달성은 1976-1982년 사이의 멕시코나 차베스 정부 하의 베네수엘라 등 라틴아메리카의 산유국에서도 발견된다. “석유화 발전전략 (petrolification development)”이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다(Teichman 1988).

지향적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이 목격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겪은 위기의 징후는 다양하다(이성형 1999). 저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 뿐만 아니라, 수백%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그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 실업인구의 증가, 지속적인 외채위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에 대한 해석과 처방으로서 시장근본주의적 처방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 혹은 워싱턴 컨센서스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했다(김원호 2005). 외채 감소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지출의 감소와 감세, 금융과 무역의 자유화, 규제완화와 외국인투자개방, 민영화, 변동환율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동아시아모델을 본받은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채택되었다.

라틴아메리카가 채택한 수출대체산업화 전략은 동아시아에서 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도리어 하락한 성장률, 빈곤층과 실업률 증가 그리고 비공식 부문의 압도적 성장으로 대변되는 양극화의 심화가 이 전략의 실패를 말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김원호 2005, 287). 워싱턴 컨센서스의 정책 방향이 성공하려면 정치개혁과 함께 부패추방, 신중한 개방, 사회안전망 확충, 빈곤퇴치 등의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자가 부시의 “민간기업주도(Private Enterprise Initiative)”라는 구호로 표현되었다면 후자는 클린턴의 “민주주의주도(Democracy Initiative)”라고 표현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추진했던 수출대체산업화 발전전략의 실패는 신자유주의적 보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발전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라틴아메리카와 동아시아의 수출대체산업화 발전전략 사이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케이는 토지개혁의 성공 여부가 이러한 결정적 차이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Kay 2002). 농업과 제조업 사이에는 자본형성, 기술진보, 상품수요, 정치적 지지 등 필수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하는데 만일 토지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러한 상호작용도 약화된다. 제러피는 국가경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체계적 정책의 부족이 양 지역의 성과 차이를 결정짓는다고 보고 있다 (Gereffi 2009).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나타난 공급부문의 지역별 계열화는 중국 제품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충족시켜주고 있다. 요약컨대 허쉬만이 강조하는 바 전후방연관효과를 극대화하는 국가의 시장 개입이 없는 수출대체산업화는 실패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2008년에 신자유주의의 메카인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략에 대한 신뢰는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에서조차 극심한 불안정을 초래하는 발전전략이라면 아직도 취약한 산업구조와 극심한 양극화 및 기회의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더욱 적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라틴아메리카의 발전전략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해보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에 환경보존이라는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발전의 구조성과 자발성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이며 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을 통해 도입되었다.

### III.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주의 운동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개념은 1987년 ‘유엔의 환경과 발전에 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보고서를 통해 소개되었다. 소위 브룬트란드 위원회로 명명된 이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인 「우리의 공통적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바를 달성하는 그들의 능력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의 현재 필요를 충족하는 방식의 발전”이라고 정의했다(UN 1987, 24). 어떤 방식의 개발이든 우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발전전략이 장래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각한 제한과 손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쉽게 말해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조화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훨씬 더 정교한 개념들로 발달하고 있다. 발전의 목표, 생태 체계(ecosystem), 지속가능성, 외부비용의 내부화 등이 그러한 개념들이다. 우선 발전의 목표가 경제성장(economic growth)에서 행복(well-being)으로 확대되고 있다(Hassan, Scholes and Ash 2005, 27). 단순히 소득의 증가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초래하는 정신적·물질적 조건이 충족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로 생각할 점은 이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과 자연의 총체적 체계이다. 과거에는 방법론상으로 인간이 생산한 물질적 조건에 관심을 가졌는데 반하여 이제는 인간을 둘러싼 모든 조건과 역동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연 현재의 개발방식이 지속가능하느냐도 문제이다. 탄소에너지의 고갈과 심각한 기후변화,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급감 등이 현재 방식의 발전전략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Friedman 2008, 49). 마지막으로 과거의 자유재가 지금은 자본재가 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깨끗한 공기와 물은 더 이상 무제한적으로 공짜로 공급될 수 없게 되었다(UNEP 2010, 323).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생산 활동은 사실상 그 비용을 딴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발전전략이 급속히 공론화된 데에는 몇 가지 내부적 이유가 있다. 첫째, 앞에서 지적한 바처럼 주류적 발전전략의 채택 결과가 여전히 실망스러웠다는 점이다. 자유주의, 민족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발전전략이 다채롭게 실천되었지만 라틴아메리카의 행복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미흡했다. 둘째, 이러한 실망의 배후에는 라틴아메리카의 다양성이 숨어있다는 점이다. 종속 이론의 관점이 아닐지라도 내부식민지적 현상은 현저하며 이미 오랜 시간 정착된 양극화 구조는 기존의 발전전략을 무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셋째, 동일한 국가 공동체 내 일지라도 인종적·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인디오들은 산업화를 갈망하는 도시민들의 개발이라는 관점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단지 발전전략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군사적 갈등조차

초래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미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오랜 생태주의 운동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발전의 개념은 자연을 착취하는 발전이라는 서구적 개념과 대조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었다.

라틴아메리카 생태주의 운동은 정복자 시대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마야나 톨텍과 같은 라틴아메리카의 문명들은 지구상의 여타 문명들처럼 과도하게 자연을 착취함으로써 문명의 종말을 초래하곤 했다(Diamond 2005, 157-177). 그러나 이러한 문명 파괴의 경험은 또한 생태계 보호와 육성에 대한 관심을 초래하기도 했다. 아즈텍의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삼림보호의 흔적들이 그러한 증거이다(Miller 2007, 41). 서구의 식민지화가 진행되면서 오랜 생태계의 암흑기가 진행되었다. 식민지 개척자들은 환금작물의 재배를 위해 방대한 지역을 황폐화했다.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이 독립을 쟁취함에 따라 점차 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Hillstrom and Hillstrom 2010, 285-312). 1800년대에 프로이센의 동식물연구가인 훔볼트의 사례 이후로 나무의 사도(el angel del arbol)라 불리는 멕시코의 미겔 앙헬 데 케베도가 생태주의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1952년 멕시코에는 '재생가능한 천연자원 연구센터'가, 1961년 코스타리카에는 '토지 및 식민화 연구소'가 각각 설립되었다. 브라질에서 룩셈베르거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가우초 단체'가 설립되었고,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치코 멘테스의 활동도 시작되었다. 레스페뵈와 알프터의 노력으로 1971년 멕시코의 에체베리아 정부는 멕시코 환경보호법을 제정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르헨티나는 1977년 아르헨티나 야생재단을 설립했다. 이 시기에 유엔에서는 삼림연구센터(1959), 멸종위기 동식물관련 거래금지협약(1973), 및 아마존공동협약(1978) 등이 추진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환경보호운동을 촉진하고 있었다.

1980년대부터 라틴아메리카는 그야말로 환경운동의 봄을 맞이했다. 멕시코에서는 '친마리뵈사 모나르까(Pro-Mariposa Monarca)' (1980), '친자연

(ProNatura)' (1981), '멕시코환경운동' (1981), '생물공동체' (1982), '꼬요아 간환경연합' (1983), '국가생태학자연대' (1984), '1백인 그룹' (1985) 등 거의 1,000여 개의 환경단체들이 등장했다. 브라질의 생태주의운동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어서 "1980년대 브라질 전역은 환경단체들로 넘쳐났다"(Hillstrom and Hillstrom 2010, 303). 라틴아메리카 생태주의운동에 대한 국제적 지원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1년 '카리브지역 활동계획'을 수립한 이래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 회의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92년 리우정상회의는 생태주의 운동을 라틴아메리카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으로 승화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 IV. 라틴아메리카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책과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발전전략에 대한 대체적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전략이 실천 가능한 정책과제로 보완되지 않으면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수사에 그칠 위험이 있다. 유엔환경계획이 2010년에 발간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환경 - GEO LAC 3」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고 잘 정리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UNEP 2010). 이 보고서는 2012년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the Rio+20을 위해 마련되었는데 이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라틴아메리카의 65개 기관에서 240명이 참여하였다. 어느 보고서와는 달리 실무적 정리에 그치지 않고 이론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의 2010년 보고서는 기존의 발전모델이 생태체계라는 총체적 조건을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UNEP 2010, 23). 식민지의 환금작물 위주 단일경작, 전후 산업화, 신자유주의적 개방과 사유화, 급속한 세계화 등 제반 발전전략의 공통적 특징은 자연의 착취에 기반한 성장이었다. 그 결과는 사뭇 비극적이다. 라틴아메리카 인구는 5억 8천 명으로 늘어났고, 도시화는 79%를 자랑하며, 인구의 27%가 슬럼에 거주하고 있다. 2006년을 기준으

로 볼 때 마실 물은 인구의 92%에 공급되고 있지만, 쓰레기 처리 시설은 78% 정도이고, 1년에 대략 3만 5천 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고 있다. 2009년도 지니계수는 0.526으로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해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발전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이제 생태체계 전체를 포함하는 참여적 대안이 철저한 손익 계산과 효율성 개발에 기초하여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태체계의 역량과 향후 발전전략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은 좌우를 떠나서 이러한 ‘지속불가능성’에 동의하고 있다. 프리드만은 현 세계를 ‘에너지 기후시대(Energy-Climate Era)’라고 정의하고 있다(Friedman 2008, 49). 그는 에너지 수급과 천연자원 보존, 석유 독재, 기후 변화, 에너지 빈곤, 그리고 생물다양성 감소라는 다섯 가지 차원에서 현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존 더 그래프의 ‘부자병(affluence)’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현 체제는 끈질기게 더 많은 것을 추구함으로써 과부하와 채무와 낭비와 불안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발생시키는 유행성 질병에 걸려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포스터도 현 자본주의 체계가 생태체계의 신진대사를 단절시키고 성장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Foster 2010, 83).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표현한 ‘창조적 파괴’가 지금은 ‘파괴적 창조’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발전전략의 정책적 내용은 어떤 패러다임을 채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포스터는 이 패러다임을 ‘녹색산업혁명론’과 ‘생태사회혁명론’으로 분류하고 있다(Foster 2010, 20-21). 녹색산업혁명론자들은 현재의 자본주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술과 과학의 힘으로 지속가능한 생태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프리드만, 킹그리치, 노드하우스, 몰 등이다. 환경기술투자를 통한 자본주의 경제의 탈물질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생태사회혁명론자들은 자연과 인간이 상호의존적이고 역동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포스터, 멀

포드, 매그도프 등이다. 사회적 소유와 노동자들에 의한 사회적 생산, 공동체적 수요의 충족이 주요 내용이다.

포스터의 분류로 본다면, 유엔환경계획의 보고서는 녹색산업혁명론에 가깝다. 이 보고서는 과거의 발전전략이 ‘가난 퇴치 투쟁(Fight against Poverty)’ 이라면 새로운 발전전략은 ‘행복하게 사는 권리(Right to Live Well)’ 를 향한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UNEP 2010, 283). 그러나 단순히 환경기술의 개발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세 가지 기본명제가 있다(UNEP 2010, 283-285). 첫째, 경제성장 중심의 세계관이 초래하는 양극화와 사회해체를 극복하고 문화적·지리적 다양성과 통합 가능성의 인정, 둘째, 무분별한 소비추구에서 지속가능한 소비로의 전환, 셋째, 고립적 노력에서 국제협상을 통한 지역적 협동 등이다. 다시 말하자면 행복권의 추구는 단지 경제적,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에콰도르의 2008년 개정 헌법과 볼리비아의 2009년 개정 헌법은 이러한 명제를 헌법 내에 포함하고 있다.

총체적 생태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정책과제도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 삼림, 생물다양성, 물, 바다와 해안, 공기, 도시지역 등에 대한 개별 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토지 문제에는 농작물, 목축, 석유와 석탄, 토지유실, 토지오염, 사막화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삼림 문제에는 산림보호, 삼림개발, 산불통제, 기후변화 감지 등이 포함되고, 생물다양성 문제에는 멸종위기, 생태계 파손, 유전인자보존, 등이 포함되며, 물 문제에는 음용수 공급, 지하수 개발, 산업용수, 하수오염 등이 포함된다. 바다와 해안 문제에는 해양생물보호, 습지보호, 낚시, 양식업, 해변유실, 해양오염, 외래종 침입, 산호초 감소 등이 포함되고, 공기 문제에는 자동차오염, 산업오염, 탄광오염 등이 포함되며, 도시지역 문제에는 식수 부족, 녹지공간 확보, 생물다양성 보존, 쓰레기, 도시온난화 등이 포함된다.

정책과제들의 해결 방안도 매우 다양하며 창조적이다. 대표적으로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생물회랑지대, 생태관광, 녹색고용, 신재생에너지, 생태적 채무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생태적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과 생태체계의 조화를 고려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토지 이용에 관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계획을 선택하는 작업이다. 1980년대 초에 이미 이를 법제화한 멕시코의 경우에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Marten and Sancholuz 1982).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주에서 주로 주정부가 토지 이용 계획을 관장하고 있다. 1994년에 설립된 코스타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체계(SINADES)나 콜롬비아의 보고타 시에서 추진한 “환경관리계획 2001-2009”가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생물회랑지대는 이미 개발로 인해 고립되어 있는 생태체계의 지역적 연결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다. 특히 1992년의 다양성 협약과 1994년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맹 협약에 의해 형성된 메소아메리카 생물회랑지대(MBC)가 유명하다(Hillstrom and Hillstrom 2010, 104-107). 이 회랑지대는 멕시코의 남동쪽에서 시작하여 엘살바도르에 이르는 76만 평방킬로미터 지역이다. 세계 면적의 0.5%에 불과하지만 세계 생태계의 8%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지역의 11%가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비교적 생태계 회복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역이 방대한 만큼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호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생태관광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호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요시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 자연관광, 문화관광, 혹은 공동체관광이라 불리기도 한다. 오늘날 관광분야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다. 예컨대 16개 카리브 지역국가들 중 11개 국가에서 관광수입은 여타 상품수출의 총액 보다 더 많다(UNEP 2010, 300). 멕시코도 총 외화획득의 10%를 관광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국제정세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으나 라틴아메리카의 관광수입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막대

한 관광수입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를 확립하느냐이다. 관광안내의 현지화, 관광물자의 지역적 공급 강화, 생태체험의 증가, 지역공동체와 관광산업의 파트너십 확립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Ortiz and Solo 2009).

녹색고용은 녹색성장의 과정에 기업의 역할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려는 고용정책이다(UNEP 2010, 305). 브라질의 분리수거와 멕시코의 유기농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브라질은 2006년에 약 103억 개의 알루미늄 캔을 수거했는데 이로 인해 동일한 알루미늄 생산에 써야 할 2천 기가와트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이는 약 1백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를 일년간 밝힐 수 있는 전력이었다. 2006년에 회수율이 94%인데 이는 서유럽의 58%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멕시코는 2007년 8월에 붉은 늑대(*Coyote Rojo*)라는 유기농 상표를 개발했다. 이 상표의 개발은 소규모 지역 유기농들의 경쟁력 강화와 생물학적 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가적 지원 통로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 밖에도 콜롬비아의 생물연료, 쿠바의 삼림녹화, 코스타리카의 환경서비스, 브라질의 펄프산업 등에서 녹색고용이 추진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녹색산업혁명론자들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이다. 예컨대 프리드만은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블랙박스, 전력의 데이터 트레이딩, 에너지절약형 태양전지 등의 개발이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중대 기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Friedman 2008, 313-478).<sup>2)</sup>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전력공급서비스가 미치지 않은 지역을 위해 자가공급방식(off-grid)의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Hillstrom and Hillstrom 2010, 245-246). 브라질의 국가에너지개발프로그램은 1998년에 시작하여 250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고 공동체 기금 방식으로 약 200개의 농촌에 태양광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은행의 후원으로 1억 2천만 달러를 투

2) 프리드만은 중국의 백열등이 모두 CFL로 교체되면 매년 600억 kWh의 전력과 2,200만 톤의 석탄이 절약되고 그러면 6천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Friedman 2008, 510).

입하여 7만여 농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볼리비아에서도 고산지대 마을을 위해 약 2천 개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했고, 온두라스는 인구의 40%에 달하는 무전력 지역을 위해 세계은행의 차관을 받고 있으며, 코스타리카는 2025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획득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생태적 채무프로그램은 제3세계의 환경보존을 위해 개발유보와 국가채무 변제를 교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구 국가들이 식민지 활동을 통해 저지른 환경파괴를 이제 보상한다는 차원도 빠뜨릴 수 없다(Hillstrom and Hillstrom 2010, 285). 1987년 6월에 미국의 환경단체인 국제보존협회(Conservation International)와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의 채무 65만 달러를 변제하는 대신 볼리비아 정부는 베니 생물서식지와 야꾸마 공원의 보호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세계야생기금(WWF)의 통계를 보면 1987년부터 2003년까지 라틴아메리카의 9개국에서 31개 프로젝트로 7천만 달러를 변제 받고 있다.<sup>3)</sup>

## V. 라틴아메리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보면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내외의 관심 속에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사정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이러한 발전전략의 교체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조화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문제이다. 둘째는 새로운 발전목표인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기술의 변화로 족한가 아니면 체제의 변화가 필요한가라는 문제이다. 셋째는 혹시 라틴아메리카의 생태주의 고취가 선진국들의 산업화 비용 떠넘기기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몇몇 연구들이 강조하는 바처럼 토지 개혁 없이 이러한 생태주의 혁명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3) <https://www.cbd.int/doc/external/wwf/wwf-commercial-swaps-en.pdf>, 2010년 10월 16일 검색.

성장과 보존의 조화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가난의 퇴치와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 성장이 불가피하다. 성장하지 않는 보존은 마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도시사람이 농촌사람들은 친환경적인 초가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초가집이 친환경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초가집은 삶의 질에 있어서 아파트와 비교할 수 없다. 서구 선진국들이 저소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주민들에게 환경보존을 위해 개발을 삼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약하며 비논리적이다. 예컨대 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전통적 연료의 대체와 소득의 증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면 환경의 보존 그 자체도 난망하다. 화석연료의 적극적 도입이 삼림보호를 비롯한 생태환경의 보호에 큰 기여를 했던 한국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핵심은 친환경적이면서 동시에 소득의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 많은 환경론자들도 동의하고 있다. 예컨대 프리드먼은 친환경적인 것이 효율적이고 경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절하게 계획된 환경 규제는 기술 혁신을 자극하여 비용을 감소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 결과 국내 기업들은 국제 시장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고 또한 산업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다”는 포터 가설을 소개하고 있다(Friedman 2008, 390). 그러나 미국이 아직도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기술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에서조차 친환경적 산업화를 두려워하는데 환경기술이 극도로 취약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경제성장의 희생 없이 친환경적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일 후발주자효과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생태주의 혁명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효율적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침하자본(sunk capital)의 문제 때문이다. 프리드먼이 한탄하는 바처럼 미국의 선거를 좌우하는 중북부 석탄생산 주들의 전횡과 같은 정치적 이유가 효율적인 환경기술의 채택을 방해하고 있다(Friedman 2008, 530). 라틴아메리카에서 생태주의 운동이 강세인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산업

부르주아지가 외부의존적이며 취약하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가 친환경적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굴뚝 산업에 심하게 의존하고 있는 서구 국가들 보다 더 우세하다고 말할 수 있다.<sup>4)</sup>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태사회혁명론자들은 체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불가능하다. 생태의 복원이 불가능해지는 단계인 생태의 문턱-티핑 포인트가 다가오지만 자본주의 체제로서는 극복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프리드만이 한탄한 바처럼 기술이 있다 해도 채택이 되지 않는다. 생태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치경제의 문제”이다(Foster 2010, 6). 자본주의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근본적으로 충돌하며 따라서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와 민주적 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태사회혁명론이 아니더라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대부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0년 7월에 산타루치아의 까스뜨리에서 모인 라틴아메리카 시민단체 포럼은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라틴아메리카의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선언했다(OAS 2010, 5). 국가가 권력을, 기업이 부를 추구한다면,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생태주의운동이 혹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도 공동체 전체에 유익하면 시민단체들은 적극 주장하기 마련이다. 이로써 국가와 기업 사이에 균형을 잡을 뿐 아니라, 민초들의 의견을 체제개선에 반영하는 데 유리하다. 실제로 라틴아메리카의 생태주의 운동은 주로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의존해 왔다.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태주의적 요구가 선진국에 의해 발생한 산업화 비용의 후진국 떠넘기기일 수 있다는

4) 그러나 친환경기술의 응용이 초래하는 실제 효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연구들이 있다. 바이오연료 개발이 농업구조에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하여 Razo *et al.*(2007)의 논문을 참조할 것.

점이다. 지구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선진국의 산업화는 공유지의 비극이었다. 지구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기와 땅과 물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착취함으로써 심각한 비용을 유발했다. 이제야 산업화를 추진하는 후진국들은 이제 공유지의 자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고 있다. 프리드만의 지적처럼, “중국은 과거 선진국들처럼 선성장 후환경 정책을 쓸 수 없다”(Friedman 2008, 489). 환경을 고려하면서 선진국 따라잡기를 시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라틴아메리카는 중국과 유사한 처지에 놓였다. 그야말로 시속 80km로 달리는 버스 안에서 엔진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지상 최대의 쇼를 진행하는 중이다.

후진국의 산업화가 지구 환경에 새로운 비용을 추가한다고 해서 이를 적대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후진국의 산업화를 억제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이미 많은 비용을 유발한 선진국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려면 선진국들이 초래한 비용에 대한 공평한 부담의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유엔환경계획이 지적한 바처럼, 산업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게 생태학적 부채(Ecological Debt)를 지고 있으며 지구 환경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빈곤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Hillstrom and Hillstrom 2010, 285). 이러한 생태학적 부채를 청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속가능성 기술의 국제적 이전도 여기에 포함된다.

토지개혁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동아시아의 수출 대체산업화를 추진했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성과는 토지개혁의 부재라는 핵심적 요인과 연관되어 있다(Kay 2002). 동아시아에 있어서 성공적 토지개혁은 자영농을 발생시켰는데 이들이야말로 급속한 산업화를 위해 자본과 노동과 시장을 공급한 주체세력이었다. 이와 동시에 토지개혁을 통한 전통적 지주의 몰락은 산업화에 저항하거나 산업화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세력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했다. 이미 기업형 대지주에 의해 토지가 점유되어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이 새로운 미래를 위해 토지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가 매우 심각한 한계로 남아있다.

## VI.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의 공동체적 협력 방안

지금까지 다른 라틴아메리카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할 때 한국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의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강대국들의 식민지였던 역사적 경험은 상호 대등한 지위와 협력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착취와 지배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익을 위한 수평적 협력의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발전 전략의 수행함으로써 경험과 교훈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 자주자립을 목표로 수입대체산업화를 추구했던 라틴아메리카의 경우보다 수출대체산업화를 추구했던 한국의 경우가 보다 평등적이고 자주적이라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과정과 논리와 요인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생태주의적 노력에 한국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라틴아메리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생물회랑지대, 생태관광, 녹색고용, 신재생에너지, 생태적 채무프로그램 등 각 분야의 주요 프로젝트들은 궁극적으로 한국도 필요한 내용들이다. 전통적으로 제3세계의 항구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몰두한 일본의 경우에 점증하는 해외원조(ODA)를 기초로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점차 참여를 증대시키고 있다(ECLAC 2010b). 이러한 지역 간 협력은 환경규제가 초래할지도 모르는 무역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Bechtel and Tosun 2009).

환경기술의 개발과 이전은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이다. ECLAC는 선진국과의 협력에서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ECLAC 2010a). 통신전자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은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대안이다(TMC News, August 20, 2009).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예만 보더라도 한국의 경우에 국가에너지소비의 3%(전기에너지의 10%)를 줄일 수 있으며 이를 CO<sub>2</sub>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4천1백만 톤의 감축을 의미한다.<sup>5)</sup> 한국은 미국과 같이 대규모 영토를 가진 나라와 달리 에너지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환경 기술에 소홀하기 쉬우나 이러한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원일 2010). 또한 ICT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니터링과 책무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칠레의 안데스 사슴 보호, 브라질의 아마존 산림감시, 멕시코의 산림보호체계 등은 GPS의 발달이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UNEP 2010, 322). 사회전반에 걸친 ICT 기술의 확산으로 시민사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속가능성의 유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식기반의 형성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그 자체가 경제적·사회적·생태적 차원의 복합이며 지식기반형 발전전략이다(Clark 2003).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라는 양적 개념에서 기술과 문화와 가치라는 질적 개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질적 혹은 지식기반형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은 한국의 경우에도 당면한 과제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발전전략은 어떤 형태로든지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이 공유하는 해결 과제이다. 특히 한국이 과거의 발전과정을 교육과 지식의 증진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식기반의 확립에 좋은 협조가 가능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동시 달성이라는 한국의 공동체주의적 발전모델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물론 역사적 상황이나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한국과 동일한 경로를 밟을 수는 없다. 그러나 토지개혁을 통한 자영농 육성, 놀라운 교육열, 지배연합의 단결 및 외부환경의 활용과 같은 한국 모델의 보편적 속성은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지금까지 한국 모델은 수출주도형 성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시각으로만 보급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의 발전 원인을

5)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smartgrid.or.kr/09smart2-1.php>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었으며 이를 채택했던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도리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후방연관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도리어 라틴아메리카의 대외 종속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발전모델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이해는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미래에 매우 적합하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토지개혁을 통한 자영농 육성, 놀라운 교육열, 지배연합의 단결 및 외부환경의 활용이라는 한국의 개방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모델이 보여주는 속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백종국 2009). 이러한 발전이야말로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새로운 발전모델을 이끌어갈 주체세력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연환경계획이 제안하는 바대로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전략을 ‘가난에 대한 투쟁’에서 ‘잘 사는 권리’로 전환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전환을 수행할 주체세력이 없다면 이는 공상에 불과하다. 교육수준이 높은 자영농 계층의 존재는 양극화와 대외종속을 저지하고 주체적 발전전략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속가능성을 선호하는 세력이 권력을 획득해야 가능하다.

## 참고문헌

- 김원호(2005), 「라틴아메리카의 발전모델은 순환하는가?」,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7, NO. 4, pp. 259-297.
- 백종국(2009), 『한국 자본주의의 선택』, 한길사.
- 이성형(1999),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 한길사.
- 이연호(2010), 「지속가능발전정책 거버넌스의 평가」, 동서연구, Vol. 22, No. 1, pp. 7-45.
- 이월일(2010),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추진의 전략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Vol. 10, No. 1(3월), pp. 99-112.
- Altieri, Miguel A.(1992),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in Latin

- America: exploring the possibilities.” *Agriculture, Ecosystems and Environment*, 39, pp. 1-21.
- Altomonte, Hugo(2010), “Energía y Desarrollo Sostenible: el papel de la eficiencia energética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http://www.eclac.cl/dmni/noticias/noticias/8/41128/HugoAltomonte.pdf>.
- Bechtel, Michael M. and Jale Tosun(2009), “Changing Economic Openness for Environmental Policy Convergence: When Can Bilateral Trade Agreements Induce Convergenc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3, pp. 931-953.
- Bookchin, Murray(1995), *The Philosophy of Social Ecology*, Montreal: Black Rose Books, 문순홍 옮김(1997), 『사회생태론의 철학』, 솔.
- Brown, Lester R.(2007), *Plan B 3.0*, 황의방/이종욱 옮김(2008), 『플랜 B 3.0』, 도요새.
- Clark, William C., “Research Systems for a Transition Toward Sustainability,” in W. Steffen, J. Jager, D. J. Carson and C. Bradshaw(eds.), *Challenges of a Changing Earth*, Berlin: Springer-Verlag. [http://www.hks.harvard.edu/sustsci/ists/docs/BC\\_ResSys\\_Amsterdam02.pdf](http://www.hks.harvard.edu/sustsci/ists/docs/BC_ResSys_Amsterdam02.pdf).
- Diamond, Jared(2005), *Collapse: How Societies Choose to Fail or Succeed*, New York: Penguin Books.
- ECLAC(2002),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From Monterrey to Johannesburg*, UNDP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Johannesburg.
- ECLAC(2005), *Objetivos de Desarrollo del Milenio: Una Mirada des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Santiago de Chile: UN.
- ECLAC(2010a), *Objetivos de Desarrollo del Milenio: Avances en la Sostenibilidad Ambiental del Desarroll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Santiago de Chile: UN.
- ECLAC(2010b), “Cooperación y relaciones económicas entre Japón y América Latina y el Caribe,” [http://www.eclac.cl/prensa/noticias/comunicados/0/40710/Hoja\\_Japon\\_final.doc](http://www.eclac.cl/prensa/noticias/comunicados/0/40710/Hoja_Japon_final.doc) (2010.9.2).
- Foster, John Bellamy(2009), *The Ecological Revolution*, Monthly Review Press, 박종일 옮김(2010), 『생태혁명: 지구와 평화롭게 지내기』, 인간사랑.

- Friedman, Thomas L.(2008), *Hot, Flat, and Crowded*, 최정임/이영민 옮김 (2008), 『코드 그린.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 21세기북스.
- Gabaldon, A. J.(2006), “Sustainable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erspectives and Future,” <http://www.eolss.com/eolss/46a.htm> (2010.10.4).
- Gereffi, Gary(2009), “Development Models and Industrial Upgrading in China and Mexico,”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25, No. 1, pp. 37-51.
- Gomez, Ricardo, Patrik Hunt and Emmanuelle Lamoureux(1999), “Wondering about telecentres: can they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Revista Latinoamericana de Comunicacion CHASQUI*, 66 (June), pp. 35-39. [http://www.idrc.ca/fr/ev-4343-201-1-DO\\_TOPIC.html](http://www.idrc.ca/fr/ev-4343-201-1-DO_TOPIC.html) (2010.10.4).
- Gillezeau B, Patricia(2003), “Ética, gestión municipal y desarrollo sostenible,” *VII Congreso Internacional del CLAD sobre la Reforma del Estado y de la Administración Pública*, Panamá (2003.8.31).
- Hassan, Rashid, Robert Scholes and Neville Ash(2005), *Ecosystems and Human Well-being: Current State and Trends*, Vol. I, Washington: Island Press.
- Hillstrom, Kevin and Laurie Hillstrom(2004),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 continental overview of environmental issues*, 정경원 외 옮김(2010),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녹색환경의 현재와 미래』,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Hirschman, Albert O.(1968), “The Political Economy of 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in Latin America,”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2 (February), pp. 1-32.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2008),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 Climate Change and Energy: Opportunities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ashington, DC: IADB.
-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09), “How the energy sector can deliver on a climate agreement in Copenhagen: Special early excerpt of the World Energy Outlook 2009 for the Bangkok UNFCCC meeting,” *OECD/IEA*.

- Kay, Cristobal(2002), "Why East Asia overtook Latin America: agrarian reform,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Third World Quarterly*, Vol. 23, No. 6, pp. 1073-1102.
- Mares, David R.(1985), "Explaining choice of development strategies: suggestions from Mexico, 1970-1982,"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9, No. 4 (Autumn), pp. 667-697.
- Marten, Gerard G. and Luis A. Sancholuz(1982), "Ecological Land-Use Planning and Carrying Capacity Evaluation in the Jalapa Region (Veracruz, Mexico)," *Agro-Ecosystems*, 8, pp. 83-124.
- Miller, Shawn William(2007), *An Environmental History of Latin America: new approaches to the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AS(2002), *Facing the challeng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DB and the Environment: 1992-2002*, Washington, D.C.: IDB.
- OAS(2006), "Declaration of Santa Cruz +10," *First Inter-American Meeting of Ministers and High-Level Authoriti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December 4-5, 2006, Santa Cruz de la Sierra, Bolivia.
- OAS(2006), *Inter-American Progra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6-2009)*, Washington, D.C.: OAS.
- OAS(2010),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mericas," *Caribbean Civil Society Forum meeting report*, Castries, Saint Lucia (2010.7.5).
- Ortiz, Diana and Tova Maria Solo(2009), "Responsible and sustainable tourism-lessons from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n Breve (World Bank)*, 142 (August), pp. 1-4.
- Razo, Carlos, Sofia Astete-Miller, Alberto Saucedo and Carlos Ludeña(2007), "Biocombustibles y su impacto potencial en la estructura agraria, precios y empleo en América Latina," *CEPAL desarrollo productivo serie (178)*, Santiago de Chile (2007.6).
-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2007), *Sustainable Energy Policy Initiative Report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Depart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and Energy and Security Group (2007.4.30).
- Sanchez, Omar(2003), "Globalization as a Development Strategy in Latin

- America?" *World Development*, Vol. 31, No. 12, pp. 1977-1995.
- Teichman, Judith(1988), *Policymaking in Mexico: From Boom to Crisis*, Winchester: Allen and Unwin.
- UN(1987),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1987.8.4).
- UN(1998),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New York: UN.
- UNEP(2010),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nvironment Outlook, Geo LAC 3*, Panama City: UNEP, Regional Office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백종국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jgback@gnu.ac.kr

논문투고일: 2011년 3월 20일

심사완료일: 2011년 4월 22일

게재확정일: 2011년 4월 29일